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

채민정¹, 정효주²‡

¹조선간호대학교, ²동신대학교 간호학과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Min-Jeong Chae¹, Hyo-Ju Jung²‡

¹*Chosun Nursing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 Study participants were 454 nursing students with a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who were enrolled as members of two university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SPSS 19.0 program. **Results** : Satisfaction with maj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reer preparation. A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was found in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clusions** : Universities and departments should provide much effort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urriculum and hands-on training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and interests so that their outcomes can be connected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areer, Behavior, Satisfaction

* 이 논문은 2016년도 조선간호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o.2016-04).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Chosun Nursing College in 2016(No.2016-04).

‡ Corresponding author : Hyo-Ju Jung(jhj127656@hanmail.net) Department of Nursing, Dongshin University

• Received : Apr 14, 2016

• Revised : Jun 10, 2016

• Accepted : Jul 25, 201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자아실현 및 생존과 직결되고 한 개인의 전체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1]. 개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우선은 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 즉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게 공부하며 미래의 직업을 생각하는 등 학생의 의지와 태도가 진로준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부재와 사회적 고학력 추세로 인하여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3],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해 충분한 탐색과 적절한 진로준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입학 후 전공 부적응을 비롯한 취업과 진로문제를 겪게 된다[4].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졸업과 동시에 전공분야의 정규직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다른 학과 학생들과 비교하여 진로와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이점을 고려하여 진로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적고, 이로 인한 진로준비 행동도 미흡한 편이다[4][5]. 취업 전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졸업을 하고 간호사가 된 경우 자신의 직업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조기 이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1]. 이는 진로 결정을 하고 난 후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충분한 진로준비 행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6], 전공 교과를 공부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즐거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하여 형성된다[7].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가지게 하며[8],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진로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9]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진로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여 취업을 위한 준비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 시각에까지 영향[10]을 미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진로준비를 하고 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에 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임상실습은 간호 대학생이 이론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간호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체험하는 과정[11]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화시켜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경험은 자아 정체감과 자기 존중감의 강화시켜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2],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추후 간호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12]. 또한, 임상실습 동안 부정적인 경험은 신입간호사의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3]. 즉,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간호학에 대한 가치, 간호사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지 등 평가해보는 기회로 작용하여 진로준비 및 취업 후 직장유지를 위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공만족도와 함께 임상실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파악된다[9][10][12].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4][5][14] 찾거나,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와의 관계를 [15][16] 알아보았을 뿐 임상실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공만족도뿐 아니라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이 자신에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와 상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임상실습만족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 간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 시와 J 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표본의 수는 G 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양측 검정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 .04$, 독립변수 2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 .90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수는 320명으로 대상자 수는 충족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500부를 직접 배부하여 470부(94.0%)를 회수하였으며 결측값이 많거나 중간화 경향을 보이는 불성실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454부를 최종 통계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Kim & Ha[17]의 34개 문항의 학과만족 도구를 Lee[18]가 전공만족과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하여 개발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 만족' 3문항, 교수 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Lee[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전공만족도의 요인별 신뢰도는 일반만족 Cronbach's $\alpha = .91$, 인식

만족 Cronbach's $\alpha=.93$, 교과 만족 Cronbach's $\alpha=.78$, 관계만족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은 Kim & Kim[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 Kim[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Cho & Kang[20]에 의해 개발된 도구와 Lee[21]가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Lee et al.[22]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간호학 교수 2인의 조언을 받아 간호대학생이 응답하기 쉽도록 일부 문장 표현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총 3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다. Lee et al.[2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7$ 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92$ 이었고, 임상실습만족도의 요인별 신뢰도는 실습교과 Cronbach's $\alpha=.75$, 실습내용 Cronbach's $\alpha=.66$, 실습지도 Cronbach's $\alpha=.89$, 실습환경 Cronbach's $\alpha=.82$, 실습시간 Cronbach's $\alpha=.88$, 실습평가 Cronbach's $\alpha=.72$ 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D대학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040708-201512-SB-003-01). 자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진행을 위하여 해당 간호학과의 학과장 및 학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작성하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 거부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설명을 마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자가 거두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Baron & Kenny[23]가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의 종속 변인에 대한 효과를 통제하였을 때 매개 변인이 종속 변인과 유의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넷째, 매개변인이 포함된 회귀식에서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감소하거나(부분 매개 효과) 없어야 한다(완전 매개 효과). 또한,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대상자는 454명으로 여학생이 396명(87.2%)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는 25세 이하가 360명(79.3%)이었고, 25세 이상은 94명(20.7%)이었다. 학년은 3학년 230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나 학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무교 239명(52.6%), 기독교 127명(28.0%) 순이었으며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229명(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58(12.8)
	Female	396(87.2)
Age(year)	25≤	360(79.3)
	25>	94(20.7)
School grade	3rd	230(50.7)
	4th	224(49.3)
Religion	No religion	239(52.6)
	Christian	127(28.0)
	Catholic	64(14.1)
	Buddhism	22(4.8)
	Others	2(0.4)
Club activity	Yes	225(49.6)
	No	229(50.4)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과 임상실습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평균평점이 3.65±.54점이었다.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전공에 대한 사

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도는 3.96±.63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가장 낮은 영역은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로 3.42±.68점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의 평균평점은 2.48±.49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평점이 3.21±.48점이며 하위영역 중 실습교과에 만족도가 3.56±.71로 높게 나왔으며, 실습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2.86±.54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core for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454)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Satisfaction with major	General satisfaction	3.59±.64	1-5
	Recognition satisfaction	3.96±.63	1-5
	Course satisfaction	3.42±.68	1-5
	Relation satisfaction	3.42±.73	1-5
	Total scores	3.65±.54	1-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48±.49	1-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course	3.56±.71	1-5
	Clinical practice contents	2.86±.54	1-5
	Clinical practice guidance	3.20±.60	1-5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5±.57	1-5
	Clinical practice time	3.26±.77	1-5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3.21±.73	1-5
	Total scores	3.21±.48	1-5

3.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진로준비 행동은 전공만족도($r=.315, p<.001$), 임상실습만족도($r=.268, p<.001$)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543, p<.001$)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N=454)

Variables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r(p)	r(p)	r(p)
Satisfaction with major	1.00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15 (<.001)	1.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543 (<.001)	.268 (<.001)	1.00

4.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23]의 회귀분석조합에 따른 매개효과검증 절차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543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가 매개 변인인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는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31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임상실습만족도가 종속 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공만족도를 통제된 상태에서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표준회귀계수 β 값은 .137로 유의하였으며 ($p=.010$), 독립변인인 전공만족도의 β 값이 .240($p<.001$)로 2단계에서의 β 값 .315보다 작아 임상실습만족도의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obel test를 한 결과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547, p=.010$).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redictors	β	t	p	Adj. R ²	F	p	Sobel test	
							z	p
1. SWM→CPB	.543	13.756	<.001	0.294	189.231	<.001		
2. SWM→SWCP	.315	7.053	<.001	0.097	49.747	<.001		
3. Model 1; SWCP→CPB	.137	2.596	.010					
Model 2; SWM→CPB	.240	4.549	<.001	.108	28.559	<.001	2.547	.010

SWM=Satisfaction with major; SWCP=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CPB=Career preparation behavior

IV.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임상실습만족도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조사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3.65점(5점 척도)으로 Lee[15]의 연구에서의 3.69점과 비슷하며 Woo[14]의 3.72점보다는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에 대한 하부요인별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속한 전공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정도인 인식만족이 3.9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3.4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Lee[15]의 연구에서도 전공에 대한 인식 만족도 점수가 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전공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은 이유는 간호사를 전문 의료인으로 생각하고, 간호학과는 취업률이 높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이 들며, 교과과정에 대한 점수가 낮은 이유는 입학 시부터 딱 짜인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로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고충이 작용한 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과에서는 각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와 전공 지식 및 기술 수준을 배양해주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겠으며, 수업 내용에 적합한 형태의 교수법을 선정하여 교과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는 3.21점(5점 척도)으로 Koo & Im[16]의 3.17점 보다는 높으나 Lee[15]의 연구에서의 3.59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실습 교과에 대한 점수가 높고, 실습교육 내용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Lee et al.[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실습교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것은 간호이론과 실습의

적절한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학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하며, 실습교육 동안 관찰 위주의 실습, 단순한 간호 실무의 반복은 실습내용의 만족감이 떨어진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라 생각된다. 따라서 기존의 실습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이 선택할 직업 세계의 실제 업무 내용 등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강한 이론을 실제 실습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습과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은 2.48점(4점 척도)으로 Seong et al.[4]의 2.38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가 취업에 가까워진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진로준비 행동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다양한 진로준비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은 전공만족도($r=.315, p<.001$) 및 임상실습만족도($r=.268, p<.001$)와 약하지만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Kim[2], Woo[14]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즉, 전공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만족도와 중등도의 정적상관관계 ($r=.543, p<.001$)를 가지며 Lee[15], Koo & Im[16]연구결과도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과 관련된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며[16], 임상실습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확신감을 가져와 진로 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달성하기위해 학습하고 능력을 개발해간다[25].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의 활용 및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 구성 및 인턴십 과정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실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의 간호사가 실습 나

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간호활동의 수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전략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임상실습만족도가 부분적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Han & Hong[25]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확신정도에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완전매개효과로 작용하여 자신의 진로를 사회복지사로 선택하는데 있어 그 확신정도를 높여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준비해 나간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 행동이 부족한 간호대학생에게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증가시키는 상담 및 프로그램이 함께 적용될 때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효과는 더욱 커질 거라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변화에도 잘 적응하여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준비 행동,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

수록 진로준비 행동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가 진로준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실무중심의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겠다. 또한, 진로상담이나 교육, 산업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과 관련된 과정에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학습과 진로활동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 대학생을 연구대상자로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들과의 비교 연구들을 통해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학년에 따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 행동사이에 임상실습만족도의 매개 효과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반복된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W.H. Hwang, C.S. Youn(2014), A Study on the Moderate Effect of Career Decision Making Type on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Vol.29(5); 74-98.
2. J.G. Kim(2012), The Study on the Effects of

- Individual'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5(3);161-179.
3. S.Y. Park, D.H. Lee(2013),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2(1);23-38.
 4. J.A. Seong, S.Y. Bang, S.Y. Kim(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Vol.2(2);29-38.
 5. Y.J. Ko, I.K. Kim(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1);62-71.
 6. K.H. Kim, H.S. Ha(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1(1);7-20.
 7. Y.J. Song, G.P. Cho(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Flow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5(4);355-374.
 8. I.O. Moon, G.W. Lee(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1);83-91.
 9. Y.S. Kang, S.K. Hwang(2013),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7);3301-3309.
 10. Y.K. Park, I.S. Woo(2015),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eer Select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Foodservice, Class Particip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Vol.21(4);121-130.
 11. M.R. Won, Y.J. Kim(2013), Career Attitude Maturity its Predictors of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d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llege Counselling & Research*, Vol.19(1);57-72.
 12. N.Y. Yang, S.Y. Moon(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2);216-225.
 13. H. Lai, T. Peng, F. Chang(2006),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Decision in Taiwanese Nursing Students: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43(5);581-588.
 14. C.H. Woo(2016), Speciality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The Korea Contents Society Conference symposium*, Vol.14(1);287-288.
 15. J.Y. Lee(2011), Correlations between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Vol.12(3·4);213-224.
 16. H.Y. Koo, H.S. Im(2013),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1);311-321.
 17. K.H. Kim, H.S. Ha(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1(1);7-20.

18. D.J. Lee(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1-48.
19. B.W. Kim, K.H. Kim(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9(1);331-333.
20. K.J. Cho, H.S. Kang(1984),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2);63-74.
21. S.E. Lee(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7(2);333-348.
22. S.H. Lee, S.Y. Kim, J.A. Kim(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219-231.
23. R.M. Baron, D.A. Kenny(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6);1173-1182.
24. S.Y. Lee, S.Y. Jeon, Y.Y. Kim(2016), Mediation Effect of a Positive Stress Coping Strate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2);193-204.
25. J.B. Han, S.M. Hong(2011), Analysis of Mediation Path Between Supervision and Career certainty major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Vol.15;201-219.